

『변화의 칸토』에 나타난 자아 위기*

이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변화의 칸토』(*Two Cantos of Mutabilitie*)는 스펜서(Edmund Spenser) 사망(1599) 후 1609년에 『페어리 여왕』(*Faerie Queene*)의 다른 6권과 함께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이 마지막 시는 알레고리적 소재 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세 권(4-6권)이 첫 세 권과 함께 출간된 1596년 직전에 쓰였을 수 있고(Zurcher 40), 스펜서가 유실된 7권의 다른 부분에서 따로 떼어 내어 죽기 직전에 현재 형태로 수정한 것일 수도 있다(Lethbridge). 시작(詩作) 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추측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변화의 칸토』가 쓰인 1590년대는 영국과 스펜서가 살던 아일랜드가 노쇠한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의 죽음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를 앞두고 있었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원의 변화의 바람이 불던 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노래한 『변화의 칸토』는 16세기 말 영국과 전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로 인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이 작품에서 여러 차원의 변화와 위기를 읽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우선, 정치권력과 법률 용어로 표현된 “변화”¹와 조브(*Jove*) 간의 정치적, 법리적 분쟁에 초점을 맞추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¹ 이 논문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용어인 변화와 구별하기 위하여 『변화의 칸토』에 등장하는

어, 이 작품을 영국과 아일랜드 정치 상황의 변화와 위기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² 이러한 시도와 차별적으로, 노언버그(James Nohrberg)가 『변화의 칸토』를 “스펜서의 ‘총체적 인식’을 일람하는 철학적 개요(概要) . . . 혹은 존재론적 대요(大要)”⁽⁹²⁾라고 칭하듯이, 이 작품에서 철학적, 인식론적 변화와 위기를 읽어내려는 관점이 있다. 라마찬드란(Ayesha Ramachandran)은 이 시의 정치적 언어를 우주의 근원과 질서에 대한 형이상학적, 철학적 알레고리라고 보아, “변화”의 주장은 당시 유행한 루크레티우스(Lucretius)의 물질론적 주장으로 기존 우주론과 인식론에 대한 근대 초기의 회의적 사고와 태도를 표명한다고 해석한다. 라마찬드란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면서도 파우리(Sarah Powrie)는 당시 일어난 우주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변화”의 주장들이 확고한 위계질서를 갖춘 전통적 우주관과 그에 기초한 “초월적 확실성을 드러내는 알레고리”의 기초를 흔드는 새로운 천문학, “코페르니쿠스적 패러다임”(76)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논문은 이 작품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관심을 가져온 위기와 변화를 인간자아³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자아 문제는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Part 2*) 이후 이 시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르네상스 당시 여러 저술과 문학작품들이 개인, 개인성, 자아, 자아 형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스펜서도 『페어리 여왕』을 통해 “높은 지체에 알맞은 고결한 훈육으로 신사와 귀족을 양성하려는”(“Letter to Raleigh”)⁴ 의지를 표명하며 자아와 그 형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

“변화”(Mutabilitie, Change)를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인용부호를 붙여 표기할 것이다.

² 이 관점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헤론(Thomas Herron)이 그의 논문 미주 8에서 매우 잘 정리하였다. 헤론이 정리한 연구들과 헤론의 연구 외에 덧붙일 수 있는 주요 연구로는 차우두리(Supriya Chaudhuri), 파울러(Elizabeth Fowler)의 연구가 있다.

³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자아(self)를 개인의 본질이라는 의미와 개인(person)이라는 의미로 두 용어를 혼용한 이후, 자아와 정체성을 논하는 현대 철학에서 “self”와 “person”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왔다(Barresi and Martin 33-34). 본 연구에서도 자아(self)를 그 철학적 맥락에서 사용할 것이다. 재귀대명사 “self”가 “한 인간의 본질적이고 내재된 그 자신”, “육신과 대조되는 영혼 혹은 정신과 흔히 동일시되는 자아(ego)”, “의식의 연속적이고 . . . 영속적인 주체”라는 의미로 영어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74년 이후이다(OED).

⁴ 『페어리 여왕』으로부터 인용은 A. C. Hamilton, *Edmund Spenser: The Faerie Queene*, Rev. ed. (London: Longman, 2007)에 의하고, 작품 인용 시(권.칸토.연.행)로 표기한다.

다. 그런데 스펜서에게 있어서 자아 자체의 문제, 자아 개념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린(Thomas Greene)이, 전적인 자기 결정의 자유에 따라 운명을 선택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자아 형성력을 주창한 피코(Giovanni Pico)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적 열정과 낙관주의가 당시 문학에 미친 영향과 과장에 대해 중세와 르네상스 당시 사상가들의 견해를 배경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스펜서의 자아와 자아 형성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261-62). 또한 신역사주의 비평을 주도한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이 『페어리 여왕』에 나타난 자아 형성과 권력, 제도와 같은 문화적 힘과의 관계를 현대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조망하였다(4장).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연구는 2권, 칸토 12를 중심으로 스펜서의 그리스도교-플라톤적 본체에 기반을 둔 자아를 해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인간과 인간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힘과 이념들 간의 역학이 만들어 내는 허구적 자아와 그 형성에 주목한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스펜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교-플라톤적 본체에 기반을 둔 자아 개념에서 출발하여, 근대초기 유럽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담고 있는 『변화의 칸토』에서 그 자아 개념이 겪는 위기를 탐구하고자 한다. 『변화의 칸토』에 각인된 자아의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는데, 이 자아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변화의 칸토』의 언어와 개념이 과학적, 정치적, 신학적이거나보다는 철학적(Weatherby 114; Ramachandran 224)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철학적 관점에서 자아의 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조명을 통해 “변화”의 전복적 주장들이 스펜서의 전통적 자아의 기반을 위협하고 와해시키는 자아 개념들, 즉 17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는 새로운 자아 개념들에 대한 시인의 예견을 함축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그리스도교-플라톤적 본체에 대한 “변화”의 도전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문화 전반에서 위기가 감지되었고 그로 인해 자아 위기 현상도 나타났다(Baumeister, Martin, Baldwin, Desan 등). 드상

작품의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번역이다.

(Philippe Desan)은 당시 유럽의 총체적 위기를 프랑스라는 국지적 상황을 통해 조명한다. 프랑스에서 1580년-1630년 사이, 몽테뉴(Michel Montaigne)와 데카르트(René Decartes) 사이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쇠퇴와 몰락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물체들은 무한한 우주 속에 목적 없이 떠돌고, 모든 것이 부단한 움직임 속에 있고, 인간은 존재론적 별거승이 상태를 새롭게 발견하며 놀라”(12)고 있었다. 이 “인간 본질”의 위기 상황(24)에서 몽테뉴는 기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회의하였고, 데카르트는 인문주의적 윤리가치, 정치관, 우주관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현상은 단지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유럽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유럽 전체에 퍼져있던 인문주의와 인문주의 교육이 형성한 자아의 위기 때문이다. 고전 문헌들을 기반으로 한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은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였고 수사학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일하는 현실 세계 특히 정치적 상황과 같은 가변적인 상황은, 그들이 수사학 교육을 통해 습득한 웅변과 능변을 도덕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만들었다. 그렇게 될 때 수사학 교육이 강조한 키케로(Cicero)적 명예와 영광의 윤리는 정치적 이기심을 미화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된 자아, 자신의 확신, 신념, 감정들을 숨기는 공적인 허울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개인”은 자아의 외면과 내면의 불일치를 빈번히 경험하게 되었고(Martin 1322) 그 불일치는 행위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일치의 덕으로 성실(sincerity)이 강조되었고(Baumeister 163-65, 특히 164 도표), 성실 뿐 아니라 중세부터 내려온 신중(prudence)의 개념도 새롭게 해석되어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자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Martin).

이렇게 “외관이 실체와 다르고 진실이 말해진 것과 다른 세상을 이해하고 허구적 페르소나를 제시하는데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을 안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전략으로 “자아에 대한 새로운 논의”(Baldwin 347)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볼드윈(Geoff Baldwin)은 이 “새로운 논의”를 16세기 후반 이후 전쟁과 자연 재앙,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겪은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립시우스(Justus Lipsius)의 신스토아주의 사상과 연결 짓는다.⁵ 볼드윈에 의하면, 인문주의 철학과 윤리, 인간관에 대한 회의

적 각성은 새로운 철학과 도덕, 인간관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고,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항심(恒心)(constancy)에 중심을 둔 신스토아적 자아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영국도 이와 같은 전 유럽적인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신스토아주의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영국에서 유행한 것도 바로 인문주의의 쇠퇴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권 말기 현상들이 결합하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여러 차원의 위기의식이 만연했기 때문일 것이다.⁶ 여왕 정권 말기 에섹스 백작(Earl of Essex)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동자와 가담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지식, 사상과 행동 양식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를 신스토아주의에서 찾았다(Healy 및 Dzelzainis 참조). 스펜서가 『페어리 여왕』 7권 (“The Legend of Constancie”)에서 항심의 덕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총체적 존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문학적 시도라 할 수 있다.⁷

7권은 12개 칸토의 중앙에 해당하는 칸토 6, 7, 그리고 8의 두 연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시인이 완성하고자 했던 항심이 어떤 덕일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미완성으로 남은 부분도, 출판자가 『변화의 칸토』라는 제목을 붙였듯이, 항심보다는 항심의 적대적 힘인 변화를 대부분 노래하고 있다. 그 노래는 지상과 천상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가변성을 찬양하면서 기존 세계의 정해진 항구한 질서와 토대를 뒤흔들고 있다. 『변화의 칸토』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질서(cosmos) 자체로 간주되어 온 우주(macrocasm)의 하모니를 깨는 불협화음과 같다. 대우주가 겪는 이 근본적 위기는 곧 소우주(microcasm)인 인간과 인간계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무엇보다 대우주의 질서에 기초한 자아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체험을 한다.

⁵ 립시우스의 신스토아주의는 여러 상황에서 많은 재난을 겪은 근대초기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 윤리, 정치, 실용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행동 지침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필자도 (신)스토아사상은 근대초기 영문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 있다. 필자는 근대초기 영국의 대표적 여성작가 메리 로스(Mary Wroth)의 작품에 나타나는 (신)스토아주의에 대해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최근에 저작 『메리 로스: 여성, 문학, 스토아사상』을 출간하였다(2017.2).

⁶ 신스토아 사상의 영국 도입에는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이진아, 「신스토아주의」, 8-9), 시드니를 숭앙하던 일군의 문인들과 동시대인들이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17세기 중반까지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McCrea).

⁷ 벌린슨(Christopher Burlinson)도 지적했듯이(207), 스펜서의 항심의 덕은 당시 유행한 립시우스의 항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칸토』가 노래하는 자아 위기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존재, 자아의 근본에 대한 플라톤적 개념일 것이다. 변화의 위기를 겪는 것은 바로 그 개념이기 때문이다. 스펜서의 작품세계가 플라톤주의와 접목된 그리스도교 사상에 기반을 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⁸ 물론 그의 작품들에서, 특히 『페어리 여왕』에서 『변화의 칸토』를 위시하여 존재의 근원을 다루는 일화들(대표적 예로는 「아도니스의 정원」(“Garden of Adonis”, 3.6.29-51)의 세부 묘사 하나하나가 플라톤 사상이나 그리스도교 사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에 대한 시인의 가장 기본 개념은 플라톤적 이원론에 기초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⁹ 아도니스의 정원, 에 제시되어 있듯이, 만물의 개별 사물은 “형태”(forme)와 “본체”(本體, substance)¹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은 형태인 육체와 본체인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형태인 육체는 변하지만, 영혼은 인간의 본체로서 육을 입고 한 인간으로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선재(先在)하고 죽음 후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재생을 기다린다. 영혼은 “절대적 본질”이자 “참 존재로 항상 같으며”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 “절대적 존재”(『파이도』 24.78d)에서 기원하며 이 존재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고 죽음 후에는 완전한 정화 단계를 거쳐 이 존재에게로 되돌아간다.¹¹

⁸ 스펜서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까지 연구에 대해서는 『스펜서 백과사전』(Spenser Encyclopedia), 「플라톤주의」(“Platonism”) 항목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사전이 발간된 이후에도 이 주제는 계속 연구되어 왔다: 컷츠런드(2001), 스펜서와 플라톤주의 관계를 특별판(Spenser and Platonism [Special Issue])으로 다루는 『스펜서 연구』(Spenser Studies, ed. Kenneth Borris, Jon Quitslund, and Carl Kaske) 24권 (2009) 참조. 보리스의 저서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Visionary Spenser and the Poetics of Early Modern Platonism, 2017. 10).

⁹ 스펜서의 플라톤 사상에 대한 연구는 고전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피치노(Marsilio Ficino)와 피코가 주도한 르네상스 신플라톤주의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따라서 작은 논문 한편으로 이 방대한 연구 주제를 다루기는 큰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근대 초기 발생한 인간 자아의 개념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플라톤적 인간관의 가장 근본 개념만을 다룰 것이다.

¹⁰ 영어로 “substance”는 우리말로 여러 의미로, 심지어 상충되는 의미로도 번역된다. 스펜서는 「아도니스의 정원」(3.6.29-51)에서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substance”를 가변적인 “형태”(forme)와 대조되며 불변하는 영원한 속성을 가진 것(That substance is eterne, and bideth so, 3.6.37.6)의 의미로 사용한다.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언급하자면,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형태”를 질료(matter), “본체”를 형상(form)이라 번역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펜서의 개념을 따를 것이며 “substance”를 “본체”로 번역할 것이다.

¹¹ 플라톤의 영혼 선계론과 불멸론에 대해서는 특히 『파이도』 16-29 참조할 것.

『변화의 칸토』에서 “변화”는 이 그리스도교적-플라톤적 이념으로 공고한 우주를 정복하고자 한다.¹² 그의 행보는 의도와 목적에서부터 이 이념의 기반인 불변하고 영속하는 본체를 해체하거나 그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다.

교만한 변화는 (달 아래에서,
죽을 운명의 것들을 다스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인간들뿐 아니라, 신들의
주권자임을 주장한다.

*Proud Change (not pleasd, in mortall things,
beneath the Moone, to raigne)
Pretends, as well of Gods, as Men,
to be the Soueraine. (7.6.argument)*

칸토 6의 논제(argument)는 처음부터 “변화”가 다스리는 영역을 “죽을 운명의 것들”에 국한시킨다. 플라톤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변화와 사멸을 겪는 부분은 육신이며 따라서 “변화”는 인간의 육신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가 신들의 영역인 천상계까지 통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초월적이고 불변하는 절대적 존재로 간주되는 이데아와 그 질서의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 의도는 인간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영혼, 본체의 항상성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이다. 인간의 본체가 가변적이 되면 그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사안은 자아가 가변성이 아닌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identity)은 항상성, 같음, 동일성(the sameness)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¹³ 또한 (이후 논의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이 영속성이 인간의 어느 부분에 있는 가하는 것도 자아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플라톤주의가 주장하는 인간

¹²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한 그의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혼의 플라톤적 불멸, 불변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에 대한 “변화”의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¹³ “Identity” 1. a. The quality or condition of being the same in substance, composition, nature, properties, or in particular qualities under consideration; absolute or essential sameness; oneness(OED). 필자 밀줄.

본질로서 영혼의 영원 불변성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넘어서 한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에 매우 확실하고도 견고한 항상성을 제공한다. 또한 “문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 세계에 일종의 예시적인 확고함,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Tesky 37), 스펜서에게 플라톤적 본체는 시의 “확고함”과 “정체성”의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본체의 항상성은 스펜서가 『페어리 여왕』 전체를 통해 의도하는 윤리적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자아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공간은 선이나 가치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도덕적 방향이 설정되는 공간이다(Taylor 25-32). 그렇다면 플라톤적 항상성은 자아에게 윤리와 가치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변화”가 하늘을 정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로 그 공간을 정복하여 도덕적 방향성을 가변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격심한 방향 상실”(Taylor 27)인 자아나 자아 정체성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III. “변화”의 인간관과 자아의 위기

자아의 위기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한 자아 개념의 위기이다. 또한 그 자아 개념에 기반을 둔 인간의 위기는 그 인간이 일부가 되는 세계 전체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변화”는 바로 그 전체 질서와 권위에 도전한다. 달 아래와 위의 세계를 넘나드는 “변화”의 거침없는 동력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자유롭고 당당한 형성자로서 원하는 형태로 [자신을] 형성하”(Pico 117)는 자기 창조자로서 저급한 짐승으로도, 천사와 신의 아들의 위치에도 오를 수 있는 자아 형성력, 피코를 비롯한 르네상스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주창한 자아 형성력과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변화”는 그 자아 형성력의 기반인 영원불변하는 본체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저급한 본질에서 보다 높은 영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라톤적 발전과 상승의 잠재력은 “변화라는 늘 어지러이 돌아가는 수레”(the euer-whirling wheele / Of Change, 7.6.1.1-2)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플라톤적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체에 기반을 두지 않는 자아 형성력은 허구적 자아를 양산할 뿐이다. 스펜서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변하는 그런 허구적 자아를 악덕(vice)으로 규정하고 아키마고(Archimago)나 두엣사(Duessa)와 같은 인물로

알레고리화한다. 따라서 “변화”는 악덕을 덕으로, 덕을 악덕으로 전도시키면서 스펜서가 『페어리 여왕』에서 목적으로 삼은 윤리체계 또한 위협하고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변화”는 우선 신이 태초에 정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이 축복한 “온 세상의 아름다운 구조”(all the worlds faire frame, 7.6.5.5)¹⁴를 완전히 바꾸고 가치 체계를 전도시킨다. 유대-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완성한 모든 창조물과 그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그 파괴는 인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자연 법칙뿐 아니라,
 정의와 통치 법칙 또한 파괴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그르게, 선한 것을 나쁘게 만들고,
 생명과 죽음을 어리석게도 맞바꾸었다.
 이후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은 죽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은 매일 더 나빠지고 있다.
 오 변화의 가련한 소행이여!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그 저주를 받아,
 유모에게서 생명 대신 죽음을 빨아먹어왔다.

Ne shee the lawes of Nature onely brake,
 But eke of Iustice, and of Policie;
 And wrong of right, and bad of good did make,
 And death for life exchanged foolishlie:
 Since which, all liuing wights haue learn'd to die,
 And all this world is woxen daily worse.
 Of pittious worke of *MVTABILITIE!*
 By which, we all are subiect to that curse,
 And death in stead of life haue sucked from our Nurse. (7.6.6)

¹⁴ 해밀턴은 “구조”가 하늘과 땅, 우주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frame”에 대한 주석 참조). 창세기를 근거로 해석할 때는 그런 의미가 가능하다. 하지만 7.6.5.1에서 시인은 “지상 것들의 얼굴”(the face of earthly things)을 “변화”가 망쳐놓은 것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조”는 신이 창조한 지상계의 온갖 사물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화”의 반란은 인간 사회를 윤리적으로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인 죽음을 가져온다. 창세기의 이야기와 비교할 때, 창세기 23장에서 인간 죽음의 근원은 신에 대한 불순명인데, 여기에 제시된 죽음의 근원은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 죽음은 인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행위에서 기원한다. 그는 모든 법칙을 파괴하고 선을 악으로 바꾸고 생명을 죽음과 바꾸었다. 그렇다면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에 대한 불순명 즉, 근원에 대한 도전과 거부, 파괴 행위를 의미한다.

“변화”는 현 근원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자신이 새로운 근원이 되고자한다. 새로운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현 질서를 재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신이 조브와의 전쟁에 패하여 지상으로 쫓겨난 타이탄(Titan)의 후손임(7.6.25-9)을 주장하며 조브를 하늘의 군주로 섬기는 현 질서를 문제 삼는다. 이 대담한 주장에 대해 조브는 육적인 본성을 가진 “연약한 여성”(fraile woman, 7.6.25.7)인 “변화”가 있어야할 위치는 “땅의 거처”(earths mansion, 9)이며 그가 “순수, 영속, 불멸과 불변의 영역”(『파이도』 27.79d)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변화”는 자신의 육적인 본성보다는 신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조브의 아버지 새턴(Saturn)이 장자 세습권을 찬탈하기 이전의 근원, 즉 근원의 근원으로 돌아가 볼 때 자신이 더 근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7.6.26.4-9). 이 주장은 현재의 절대적 근원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원은 무엇인가, 근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등 그 본질에 대해 던지는 회의적 질문이다. 또한 “변화”가 제기하는 근원의 본질에 대한 의혹은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그 근원을 공유한 인간 본질, 영혼의 불변 불멸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변화”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변화의 대행렬을 등장시킨다. 이 행렬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인간이 겪는 변화 그리고 죽음과 생명으로, 그것들을 통해 “변화”의 인간관이 잘 드러난다. 그가 제시하는 인간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견해는 그리스도교-플라톤적 자아, 무엇보다 영원불변하는 영혼의 존재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변화”는 제일 먼저 대지와 대지의 거주자들, 특히 인간이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임을 주장하고, 인간의 가변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리고 인간들 자신은 계속해서 변한다.

청춘에서 노년으로, 부에서 가난으로,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최악으로.
육신은 단지 이리 저리 날아다니지 못할 뿐이나,
(불멸하다고 하는) 정신은
새로운 상황이 되면, 계속 변하고 생각을 달리한다.

And men themselves doe change continually,
From youth to eld, from wealth to pouerty,
From good to bad, from bad to worst of all.
Ne doe their bodies only flit and fly:
But eeke their minds (which they immortall call)
Still change and vary thoughts, as new occasions fall.
(7.7.19.4-9) (필자 밑줄)

인용한 첫 행에서 “인간들” 바로 다음의 재귀대명사 “자신”은 스펜서가 이 단어의 가장 첫 의미, 즉 앞서 나온 사람이나 사물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란 단어를 플라톤적 이데아, 본체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다. 『아모레티』(Amoretti) 소네트 45에서 시인은 사랑하는 “당신의 고운 자신”(your goodly selfe, 2)인 “당신의 천상적 모습의 아름다운 이데아”(the fayre Idea of your celestiall hew, 7)를 “내 자신, 나의 내적 자아 안에서”(in my selfe, my inward selfe, 3)에서 보기를 갈망한다. 그는 연인을 플라톤적 이데아, 아름다움과 사랑 자체로 규정하면서 그 모습이 자신 안에서 본체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스펜서는 연인 자신, 그 자아를 플라톤적 이데아와 동일시하면서 자아라는 단어에 본체의 의미를 강하게 함축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인용한 구절에서 “자신”도 불변하는 본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고, “변화”는 “인간들 자신”이란 표현을 통해 본체의 변화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이다.

인용한 부분에서 자아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불멸적 요소가 언급되는 8-9행이다. “변화”가 인간의 속성으로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점은 인간이 흙에서 나와 죽을 운명이고 변화 속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다(7.7.19.1). 그리고 나서 “변화”는 그 유한성과 대조되는 인간의 불멸적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 불멸성에 대해 매우 교묘하게 의혹을 던진다. 그는 그리스도교-플라톤 사상에서

인간의 불멸하는 부분이라 여겨지는 영혼 대신 이성이 자리한 “정신”을 특별히 지목한다. 그리고 정신의 불멸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 불멸성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다고 “칭하는” 것이라 표현한다(8). “불멸하다고 하는”이란 표현은, 정신의 불멸성은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they”)가 하는 말 혹은 의견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그럼으로써 “변화”는 인간 정신의 사고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이므로 정신의 불멸성은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의혹 제기는 인간을 구성하는 불멸적 토대와 그 권위의 절대성을 상대화하는 동시에 그 절대성에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변화”가 인간의 불멸하는 요소로 영혼 대신 정신을 언급한 것은, 17세기 초 자아와 정체성의 개념에 일어날 사상적 지각 변동을 미리 알려준다. 당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Galileo Galilei)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행성운동법칙을 발견한 케플러(Johannes Kepler)와 더불어 근대 과학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형이상학적 목적론이나 플라톤의 본체론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버렸다. 우주라는 물질세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계와 같아 각 부분들은 완수해야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효용성을 가진 기계 부품과 같다. 이 완전한 세계와 그 안의 것들을 창조한 신은 창조 후에는 창조된 세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deus ex machina*)로 남는다. 이 새로운 우주론의 영향을 받은 데카르트는 인간에 대한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실체이론도 버렸다(Barresi and Martin 39-40; Taylor 144-45). 영혼과 육신에 대한 플라톤적 이원론에서는 개인은 자기 밖의 초월적이고 영원불변한 이데아와 그 질서를 향할 때 초감각적 영혼인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경우 개인이 향할 외부의 이데아와 같은 질서가 사라졌다. 개인이 비물질적인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물질성과 물질성의 관계를 플라톤 식으로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가 육화되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비물질적 정신은 물질적 육신의 조타수와 같은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신이 창조한 세계로부터 거리를 둔 유리된 존재이듯이 자아도 절대적 권위라는 외적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둔 “유리된 주체”(Taylor

159)가 되고, 신이 개입하지 않는 창조된 세계와 자아 완성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보다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존재가 된다. 이 자아를 논하면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본질에 대해 영혼 대신 정신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라는 주장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그에게 있어 인간 본질, 자아의 핵심은 정신, 사고하는 비물질적인 정신이다. 그래도 데카르트는 정신을 여전히 초월적이고 비물질적 실체로 간주하였다. 단지 그는 정신과 의식이 인간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여, 영혼과 육신보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더 엄격히 구분하려고 하였다(Barresi and Martin 35). “변화”가 영혼 대신 정신을 불멸한 것으로 거론하는 것은 플라톤 이후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어온 영혼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그것은 스펜서가 사망한 지 한 세대 쯤 후 데카르트가 인간 자아와 정체성을 논하면서 영혼 대신 정신을 논의의 중심에 둔 것을 예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변화”는 이렇게 영혼 대신 정신을 인간의 불멸적 본체로 대치하고 그 불멸성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후, 나아가 그는 인간의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인 본체를 아예 부인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후에 생명이 나왔고, 마지막에 죽음이 나왔다.

죽음은 가장 음울하고 무서운 얼굴을 보이지만,

그는 단지 숨이 떠나는 것일 뿐.

죽음은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명령처럼,

육체가 없고, 영혼이 없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생각해야 할 것.

그러나 생명은 아름답고 젊고 기운 팔팔한 소년 같고,

사람들이 즐겨 쿠퍼드 도령이라고 했을 그런,

발랄한 건강함과 활기찬 기쁨으로 가득하며,

온통 꽃으로 장식하고, 황금 날개를 달기에 어울렸다.

And after all came *Life*, and lastly *Death*;

Death with most grim and griesly visage seene,

Yet is he nought but parting of the breath;

Ne ought to see, but like a shade to weene,

Vnbodied, vnsoul'd, vnheard, vnseene.

But *Life* was like a faire young lusty boy,
 Such as they faine *Dan Cupid* to haue beene,
 Full of delightfull health and liuely ioy.
 Deckt all with flowres, and wings of gold fit to employ. (7.7.46)

죽음과 생명은 “변화”가 지상에서 자신의 권력의 증거로 제시하는 무리들, 특히 시간의 행렬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 먼저 등장한 생명에 주목하면, 생명은 환창 때의 큐피드처럼 젊음의 활기와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큐피드 비유는 젊음의 생명력이 풍성한 생산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궁정 연애시에서처럼 사랑의 가변성이 흔히 야기하는 고통 속에 그 성적 생명력은 무위(無爲)로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일으킨다. 생명을 장식한 꽃들 또한 곧 시들어버릴 것이고, 그에게 어울리는 황금 날개는 젊은 생명의 변덕스러움, 경박함과 가벼움을 더 깊이 느끼게 한다. 생명과 큐피드의 유비는 “변화”가 제시하는 생명이 외관만 화려한 변덕스러운 욕망(desire)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변화”는 생명을 육적인 차원에 국한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아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보다는 죽음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다. 우선 죽음은 숨이 떠나가는 것인데, 이는 창세기 2장에서 창조주가 흙으로 인간을 빚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을 연상시킨다. 성경에서 신의 영인 숨(*L. spiritus*)이 인간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을 지니게 되며, 이는 인간의 생명이 근원적으로 신에게서 기원함을 의미한다. “변화”가 제시하는 죽음은 얼핏 신적인 요소가 인간에게 있음을 긍정하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숨이 과연 신적인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신성한 숨일 수 있으나 큐피드식 활기로 가득 찬 상태가 생명이라면 그 숨은 육적인 욕망의 활기를 유지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제시하는 죽음은 플라톤이 설명하는 죽음과 사뭇 다르고, 이 죽음은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이 주장하는 인간 영혼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죽음 후의 인간의 존재 양식은 그 누구도 보고 아는(“see”)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ween”) 상태이다.¹⁵ 이 말은 우선 죽음 후

¹⁵ 4-5행은 영어 구문 상 우리말 해석이 쉽지 않다. 필자는 “ought to see . . . to weene”의 주어를 “Death”로 설정하고, 두 동사 “see”와 “weene”을 자동사로 해석하였다.

의 상태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생각과 상상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 암시는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도 상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죽음이 오면 인간은 육체, 영혼, 감각이 없는 “망령”과 같은 상태가 된다.

사람이 죽은 후 “망령”이 남는다는 생각은 플라톤 이전 시대의 산물이다 (Barresi and Martin 34). 플라톤 이전 그리스 사상가들은, 호머(Homer)의 서사시에 자주 등장하듯이, 인간이 죽으면 심령 혹은 생명력(psyche)은 육체를 떠나고 인간은 육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망령이 되어 하데스(Hades)로 간다고 간주하였다. 그런데 플라톤이 처음으로 불멸하고 비물질적인 신성한 영혼이 선재(先在)하며 이 영혼이 육신을 입음으로써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죽음의 상태는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 육신과 영혼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파이도』 9.64c). 육신은 시간 속에 사멸하지만 영혼은 “죽쇄에서 해방되듯이 풀려나”(12.66d) 온전히 정화되면 “보이지 않고, 거룩하고 불멸하며 지혜로운” 곳(29.81e),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인간 영혼은 육신이 생장 소멸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죽음 후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재생을 기다린다. “변화”의 행렬에서 생명과 죽음은 함께 등장하고 생명은 활기는 넘치지만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고 죽음과 생명은 재생산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에서 나오고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두 존재 양식은 “생산의 두 과정”이다(『파이도』 16). 이 두 과정 속에서 영혼은 육을 입기도 하고 육을 떠나 “방향에서 안식을 누리고 항상 같으며 불변한 상태에 있다”(27.79d). 물론 죽음 후에도 육신과 감각과 세상에 집착하며 신들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영혼은 그 세계에 들지 못하고 “영혼의 그림자 형태”(30.81d)로 무덤 주위를 떠돌기도 한다. 플라톤은 이 영혼을 “그림자 형태”라고 하지만 “변화”가 제시하는 영혼이 없는 “망령”은 아니다.¹⁶

“망령”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스펜서는 아도니스의 정원 에서 존재의 근원과 생장 소멸의 알레고리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다. “본체”(substance)가 만물의 “최초의 존재”(first being)이며, “본체”는 “질료”(matter), 즉 “형태와 모습”(forme and feature)을 취하여 “육”(body)이 되고, 인간은 “섬뜩한 망령에서,

¹⁶ 이러한 플라톤의 영혼 중심의 이원론적 인간관은 플로티누스와 같은 신플라톤주의 사상가들과 그리스도교의 수용과 인준을 받으며 서구 인간관에서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생명의 상태”(The state of life, out of the griesly shade)로 들어간다(3.6.37.1-5). 죽음 후에 다시 반복되는 이 과정은 플라톤이 설명하는 생명과 죽음의 두 생산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스펜서는 이 순환과정의 궁극적 결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재생의 알레고리를 통해서 죽음은 생명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한다. 그가 언급하는 망령의 상태는 죽음과 재생 사이의 존재 양식일 수 있고 영혼만이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변화”가 말하는 영혼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죽음 후 인간이 영혼이 없는 망령이 된다는, 즉 본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다는 설명은 본체의 영속성을 확인하는 스펜서의 플라톤적 인간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가변성을 인간의 본질로 삼기 위해 영혼의 불멸성을 부인하는 “변화”의 견해는 데카르트 다음 세대의 로크의 자아 견해를 예견한다. 데카르트는 여전히 인간 정신을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그 무엇으로 보았지만, 그 한 세대 후 로크는 인간의 자아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멸하는 어떤 본체적 기반도 고려하지 않고자했다. 데카르트가 영혼 대신 정신을 인간 자아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로크는 인간을 이성과 반성능력을 가진 “사고하는 지성적 존재”로 규정하며 “사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의식”을 개인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다(39). 물론 그도 논의의 상당 부분에서 전통적 자아의 불변하는 본체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본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2.34-5; 12-15.41-4). 대신 그는 “자아는, 어떤 본체(영적이건, 물질적이건, 단순하건 복합적이건 중요하지 않는데)로 구성되던지 간에, 의식하며 사고하는 존재”(Locke 9.45)¹⁷라고 정의하며, 자아의 논의 중심을 본체에서 의식으로 옮겼다. 그럼으로써 로크는 현재의 자아가 의식하고 사고할 수 없는 선형적 본체나 죽음 후에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본체를 자아 논의로부터 제외시켰다.

로크 훨씬 전에, 플라톤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가 이미 인간 의식을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바 있다(Verbeke 136-37).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혼이 육신과 결합하지만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불사불변하며 인간의 참된 자아는 영적인

¹⁷ 로크에서 인용하는 경우, (Locke 논의 번호.책의 쪽수)로 표기한다.

영혼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자아의 이 비육체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150-51). 고전 그리스 시대부터 오래된 권고인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현존하는 의식을 통해서이고, 이 자아의식을 통해 자아의 근원인 보편 영혼(Universal soul), 일자(一者)인 “거룩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플로티누스는 이렇게 의식을 통한 자아인식이 근원에 대한 의식으로 연결되어 자신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로크도 인간이 의식을 통해 자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식을 자아의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플로티누스와 달리 그 자아의식이 궁극적 근원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았고 그 연결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로크에게 있어서, “어떤 종류이든 한 존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결정되고(3.35),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성과 동일성을 유지하여 한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의식이다. “변화”가 하늘의 주권을 가지게 되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자아의 영원불변하는 기반이 없어지게 되고 자아와 정체성이 기반을 둘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신과 자신의 의식이 된다. 바로 이 상황이 로크가 자아를 논의하는 배경이 되는 상황이고 현대의 해체적 관점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불변하는 본체가 없고 현재 시간과 장소가 필수조건이 되면, 자아는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정을 통해 상황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고(Greenblatt 4) “임의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발적으로 만들어 진 것, 일종의 구성물”(Greenblatt 174)인 문화의 변화 속에 종속된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변화”는 육신은 이리 저리 날아다니듯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만 정신은 상황 마다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7.7.19.7-9). 이 주장은 정신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육신이 상황에 따라 보다 덜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변화”는 이 주장을 통해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인 육신이 개인의 자아 동일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인간과 세계에서 불변하는 비물질적인 속성이 점차 배제되고 물질이 보다 중요시될 때, 신성 불멸하다고 간주되어온 것들은 그동안 누적된 중요성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실증적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신성과 불멸성이 배제된 그 모습은 희화화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화의 칸토』에서 여담처럼 등장하는 파우누스(Faunus) 이야기(7.6.37-55)가 바로 자아와 세계의 물질화 추세를 희화적으로 알

레고리화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우누스는 “변화”가 신성불가침의 영역 혹은 속성으로 간주되어온 것을 침범하고 유린하는 행위를 회화적으로 패러디하고 있다. 신시아(Cynthia, 다이아나 Diana)는 영원한 정결의 여신으로 동정성은 그의 신성의 핵심이며 금기의 영역이다. 파우누스는 신시아의 벗은 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호기심 어린 욕구(7.6.42.9)를 따라 신화적으로 신성시된 영역을 침범한다. 그는 의도된 계획을 통해 몰라나(Molana)를 매수하여 신시아가 목욕하는 장면을 엿볼 기회를 포착한다.

그곳에서 파우누스는 눈이 너무나 즐겁고,
가슴 속 마음이 황홀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엿본 어떤-것으로 인해 너무 기뻐서,
조용히 자제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제 생각을
큰 소리로 공언하고 말았다. 오 참으로 어리석은 파우누스,
그렇게 은밀한 축복에 참지 못하고,
자만심을 드러내 알릴 필요는 없었는데.
수다스런 누설자들은 그렇게 신성한 포상을 받을 가치가 없다.

There *Faunus* saw that pleased much his eye,
And made his hart to tickle in his brest,
That for great ioy of some-what he did spy,
He could him not containe in silent rest;
But breaking forth in laughter, loud profest
His foolish thought. O foolish *Faune* indeed,
That couldst not hold thy selfe so hidden blest,
But wouldest needs thine owne conceit areed.
Babblers vnworthy been of so diuine a meed. (7.6.46)

파우누스의 행위는 악테온(Aceteon)처럼 신시아의 신성한 영역을 우연히 침범하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일종의 성적 도착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호기심은, 여신의 정결의 신성함은 여성 육체의 일부에 대한 일종의 포장된 환상 혹은 나아가 미신적으로 숭배되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의 의식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관음증적 시선을 통해 신시아

의 신성한 동정성의 본체는 사라진다. 목욕하는 여신을 몰래 엿보면서 음탕한 상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즐거워하는 파우누스의 시선을 따라 가는 독자의 눈에, “신시아 자신”(Cynthia's selfe, 7.6.51.1)의 신원, 그의 정체성은 불멸하는 신이 아니라 육체의 불확정적 환유인 “어떤-것”, 물질의 일부로 남는다.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는 시적 화자의 논평도 독자의 회극적 상상력을 중단시키고 여신의 신성함을 더럽힌 행위를 질타하기보다는, 파우누스가 그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여 자신도 함께 더 길게 나눌 “은밀한 축복”의 “포상”을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며 놀리는 어조이다. 물론 화자는 파우누스의 웃음이 신성불가침의 것을 용기 있게 침범하여 성공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자판심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자의 논평은 그도, 여신이 “어떤-것”을 가진 “일개 아낙 같은”(Like as an huswife, 7.6.48.1) 존재일 수 있으며 여신의 동정성은 신성하게 보존되어 절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파우누스의 견해에 사실 동의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인다. 여신의 신성이 이처럼 너물을 통해 물화되고 침범당해 회화화 될 수 있다면 인간 자아의 신성한 본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담하고 도전적으로 인간 자아의 본체를 부인하고 자아의 물화를 부추기는 “변화”의 목소리는 작품 내내 계속 울려 퍼지다가 작품 거의 마지막에 침묵 당한다. “변화”와 조브의 투쟁에 최종 판결을 내리고 궁극적 비전을 제시하는 자연은 『변화의 칸토』의 위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the highest him, 7.6.35.4)이다. 그는 그리스도적 신(Weatherby), 혹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유출되어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Fish), 혹은 플라톤, 초서(Geoffrey Chaucer), 보에티우스(Boethius), 루크레티우스 등 여러 사상에서 유래한 원천의 집합체이기도 하다(Knowlton). 자연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도달하는 결론의 공통점은, 이 작품에서 자연은 우주의 불멸하는 영원한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 근원의 판결을 통해 스펜서는 당시 자아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물은 변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최초의 상태”(first estate, 7.7.58.4), 즉 본체는 변하지 않으며, 변화를 통해 결국 만물은 자신으로 돌아가 “운명에 의해 정해진 자신의 완성을 이루어”(worke their owne perfection so by fate, 7) 낸다. 인간의 경우, 인간은 창조될 때 자신에게 부여된 본체적 속성을 일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유지한다. 인간이 겪는 쇠퇴나 소멸이 가져오는 변

화는 그 본체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미 예정된 목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때가 오게 된다(7.7.59.4-5).

“변화”가 최고 주권자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지위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몰락”(decay, 7.7.59.3)을 초래하는 것이다. “변화”는 부계로는 하늘에서 추방된 신의 자손이지만 모계로는 “위대한 대지”(great Earth)의 자손이므로(7.6.26.4-9) 온전히 불멸, 영속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불완전성이 바로 안정성과 동일성이 지속되지 않는 변화 상태를 생산한다. “변화”가 최고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 불변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스스로 “가장 절대적인 형태로 정체성의 와해”를 시도하는 것이다(Teskey 37).

자연은 판결은 항심의 덕의 기초를 다시금 공고히 하는 선언이다. 그리스도교-플라톤적 자아 개념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은 불변하는 본체로 인해 시공 속에서 혹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하다. 스펜서는 그 동일성, 항상성을 항심의 덕으로 구현하며 자아를 지키고자 하였다. 스토아적 관점에서 항심은 “정신의 올바른 부동(不動)의 힘”으로 어떤 외적, 내적 상황에도 유지되는 “항구함”(Lipsius 37)이다. 이 항구함을 가진 항심은 자아의 항구성을 유지시켜주는 덕이 된다. 자연의 판결은 그 어떤 존재 양식에서건 인간은 불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론적 완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언한다.¹⁸ 스펜서는 자연의 판결을 통해 인간에게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면서 완성될 불변의 본체가 있음을 긍정하고 항심의 덕으로 자신이 『페어리 여왕』 전체에 걸쳐 이루어온 시의 세계와 그 윤리체계를 보호하고자 한다.

IV. 나오는 말

『페어리 여왕』은 만물이 “영원의 기둥”(the pillours of Eternity. 7.8.2.4) 위

¹⁸ 웨더비는 자연의 판결은 처음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에서 이미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연은 타볼 산(mount Thabor)에서 “당신을 낯설게 숨기시고 / 변모하신 영광스러운 주님”(glorious Lord in strange disguise / Transfigur'd, 7.7.7-8)에 비유되는데, 인간 예수가 변모한 모습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와 개별 인간의 자아가 지향하는 목적론적 완성의 본체이다(130-31).

에 굳건히 놓여 “위대한 안식의 하느님”(great Sabbath God, 9)과 더불어 안식 하며 영원히 불변할 것이라는 열망에 찬 시인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근대 초기 이후 자아 개념의 변천을 살펴볼 때, 과연 “마지막 간증”같은 신앙 고백 (Stampfer), 혹은 욕(Job)이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영적 탐구 과정의 마지막 “집결점”(Bieman 233)과 같은 시인의 짙막한 기도가 “변화”의 강한 주장을 제압하고 침묵시켰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변화”는 서구 역사에서 플라톤 이후 오랫동안 인간의 고유 본질로 간주되어 온 영원불멸하는 본체의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대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자연의 대단원적 선언 후에도 “변화”가 인간 세상에서 벌이는 잔혹한 행위의 통렬함은 시인의 의식을 떠나지 않아(7.8.1), “변화”의 압도적인 목소리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서사적 말미를 장식한 시인의 신앙적 확신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종교의 세속화와 실증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주론과 인식론 그리고 인간과 자아의 본질에 대한 사고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주장들은 근대 초기 이후 등장하는, 스펜서가 확고하게 믿은 인간의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신성한 본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자아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다. 자아는 더 이상 “영원”이나 “하느님”과 같은 굳건한 본체에 기반을 두지 않게 된다. “변화”가 시간과 상황 속에서 계속 변하는 현상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현대적 자아 개념의 시원(時源)인 로크의 개념도 넘어서 시대적으로 매우 앞서가는 급진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정신이 상황에 따라 마구 변하고 죽음 후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화”의 주장은 정신과 의식을 기반으로 한 데카르트나 로크의 자아 동일성도 성립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변화”의 주장대로 사고와 의식 자체도 항상성이 없고 인간의 모든 것이 가변적이라면, 극단적으로는 인간에게 항상성을 기초로 하는 정체성이나 자아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변화의 칸토』에는 여러 가지 자아 개념이 등장하는데, 특히 “변화”의 인간관은 자아에 대한 21세기적 견해들의 근대 초기적 발아형태를 함축하고 있다. 스펜서 당시 자아에 대한 사고는, 루크레티우스적 물질론적 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철학적,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영원불변하는 본체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자아에 대한 논의와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윤리와 사회 철학, 심리학, 정신 병리학, 현상학, 신경과학, 심리분석, 역사, 문학, 서사(narrative) 이론, 인종학, 문화 간 연구 등”(Gallagher 27). 자아에 대한 이 다양한 주장들 중

에는 스펜서가 가졌던 영원불변의 본체를 인정하는 자아 개념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확인하는 동일성과 같은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혹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질문하며 자아 동일성 자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주장도 있다(Parfit). 나아가 자아의 실재 여부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그 존재에 대한 개념적 논증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으며 자아 논의 자체가 “단지 이데올로기적 논쟁”이고 “형이상학적 욕망과 희망”의 투사에 불과하다(Metzinger 294)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 세계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아 논의에서도 “[변화]가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mutabilitie] beares the greatest sway, 7.8.1.5)기 때문일 것이다. 자아에 대한 각각의 주장들은 한때 대단한 위세와 권위를 자랑하다가 자연의 판결 앞의 “변화”처럼 보다 권위 있는 주장에 “침묵당하며”(whist, 7.7.59.6) “너무도 덧없이, 너무도 변덕스럽게”(so fading, so fickle, 7.8.1.8) 사라져 버릴 수 있다. 혹은 스펜서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변화 속에서 기뻐하”(all that moueth, doth in Change delight: 7.8.2.6)며 나아간다고 예견하듯이, 서로 다른 이 모든 주장들은 자아 탐구의 궁극적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 시대의 문학은 그 시대 인간이 당면한 존재 조건과 딜레마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대로, 스펜서는 『변화의 칸토』에서 근대 초기 유럽인의 존재 상황에서 자아가 겪는 문제를 “서사 시인의 방식”으로 “과거의 것들에 의지하고, 다가올 것들을 예견하면서, 모든 것을 즐겁게 분석하”(“Letter to Raleigh”)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에드먼드 스펜서, 『변화의 칸토』, 자아, 자아 위기, 플라톤, 데카르트, 로크

인용문헌

이진아. 「유스투스 립시우스의 『항심에 대하여』에 나타난 신스토아주의」. *고전·르네상스 영문학* 19권 2호(2010): 5-25.

—. 『메리 로스: 여성, 문학, 스토아사상』 서울: 한국문화사, 2017.

Baldwin, Geoff. “Individual and Self in the Late Renaissance.” *The Historical Journal* 44.2 (2001): 341-64.

- Baumeister, Roy F. "How the Self Became a Problem: A Psychological Review of Historical Research." *Th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1987): 163-76.
- Barresi, John and Raymond Martin. "History as Prologue: Western Theories of the Self."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lf*. Ed. Shaun Gallagher. Oxford: Oxford UP, 2011. 33-56.
- Bieman, Elizabeth. *Plato Baptized: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Spenser's Mimetic Fictions*. Toronto: U of Toronto P, 1988.
- Borris, Kenneth, Jon Quitslund, and Carol Kaske, eds. *Spenser Studies: A Renaissance Poetry Annual*. Vol. 24. (Spenser and Platonism [Special Issue]). New York: AMS Press, 2010.
- Borris, Kenneth. *Visionary Spenser and the Poetics of Early Modern Platonism*. Oxford: Oxford UP, 2017.
- Burckhardt, Jacob.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taly*. Tr. S. G. C. Middlemore. New York: Penguin, 1990.
- Burlinson, Christopher. "Spenser's 'Legend of Constancy': Book VII and the Ethical Reader."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201-19.
- Chaudhuri, Supriya. "Mutability, Metamorphosis and the Nature of Power."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178-200.
- Dzelzainis, Martin. "Shakespeare and Political Thought." *A Companion to Shakespeare*. Ed. David Scott Kastan. Oxford: Blackwell, 1999. 100-16.
- Fish, Stanley E. "Nature as Concept and Character in the Mutabilitie Cantos." *CLA* 6 (1963): 210-15.
- Fowler, Elizabeth. "The Failure of Moral Philosophy in the Work of Edmund Spenser." *Representations* 51 (1995): 47-76.
- Gallagher, Shaun,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lf*. Oxford: Oxford UP, 2011.
- Greene, Thomas. "The Flexibility of the Self in Renaissance Literature." *The Disciplines of Criticism: Essays in Literary Theory, Interpretation, and History*. Ed. Peter Demetz. New Haven: Yale UP, 1968.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Chicago UP, 1980.
- Grogan, Jane, ed.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 Healy, Margaret. "Curing the 'frenzy': Humanism, Medical Idiom and 'Crises of Counsel in Sixteenth-century England." *Textual Practice* 18.3(2004): 333-50.
- Herron, Thomas. "Native Irish Property and Propriety in the Faunus Episode and *Colin Clouts Come Home Again*."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136-77.
- Knowlton, E. C. "Spenser and Nature." *JEGP* 34 (1935): 366-76.
- Lethbridge, J. B. "Spenser's Last Days: Ireland, Career, Mutability, Allegory." *Edmund Spenser: New and Renewed Directions*. Ed. J. B. Lethbridge. Fairleigh: Dickinson UP, 2006. 302-36.
- Lipsius, Justus. *On Constancy. De Constantia translated by Sir John Stradling (1595)*. Ed. John Sellars. Bristol: Phoenix Press, 2006.
- Locke, John. "Of Identity and Diversity." *Personal Identity*. 2nd ed. Ed. John Perry.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8. 33-52.
- Martin, John. "Inventing Sincerity, Refashioning Prudence: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in Renaissance Europ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5 (1997): 1309-42.
- McCrea, Adriana. *Constant Minds: Political Virtue and the Lipsian Paradigm in England 1584-1650*. Toronto: U of Toronto P, 1997.
- Metzinger, Thomas. "The No-Self Alternative."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lf*. Ed. Shaun Gallagher. Oxford: Oxford UP, 2011. 279-96.
- Nohrnberg, James. "Supplementing Spenser's Supplement, A Masque in Several Scenes: Eight Literary-Critical Meditations On A Renaissance Numen Called *Mutabilitie*."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85-135.
- Parfit, Derek. "The Unimportance of Identity."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lf*. Ed. Shaun Gallagher. Oxford: Oxford UP, 2011. 419-41.
- Pico, Giovanni. *Oration on the Dignity of M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Ed. Francesco Borghesi, Michael Papio, and Massimo Riva. Cambridge: Cambridge UP, 2012.
- Plato, "Phaedo." *Plato in Twelve Volumes I: Euthyphro, Apology, Crito, Phaedo, Phaedrus*. Tr. Harold North Fowler, Cambridge: Harvard UP, 1971. 193-404.
- Powrie, Sarah. "Spenser's Mutabilitie and the Indeterminate Universe." *SEL* 53.1 (2013): 73-89.
- Quitslund, Jon. *Spenser's Supreme Fiction: Platonic Natural History and The Faerie*

- Queene. Toronto: U of Toronto P, 2001.
- Ramachadran, Ayesha. "Mutabilitie s Lucretian Metaphysics: Scepticism and Cosmic Process in Spenser s Cantos."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220-45.
- Spenser, Edmund. *Amoretti*. *The Yale Edition of the Shorter Poems of Edmund Spenser*. Ed. William Oram et als. New Haven: Yale UP, 1989. 598-658.
- _____. *Edmund Spenser: The Faerie Queene*, Rev. ed. Ed. A. C. Hamilton, London: Longman, 2007.
- Taylor, Charles.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P, 1989.
- Teskey, Gordon. "Night Thoughts on Mutability."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24-39.
- Verbeke, Gerard. "Individual Consciousness in Neoplatonism." *The Perennial Tradition of Neoplatonism*. Ed. Clery, Jon J. Leuven: Leuven UP, 1997. 135-52.
- Weatherby, Harold L. "The Old Theology: Spenser s Dame Nature and the Transfiguration." *Spenser Studies* 5 (1984): 113-42.
- Zurcher, Andrew. "The Printing of the Cantos of Mutabilitie in 1609." *Celebrating Mutabilitie: Essays on Edmund Spenser's Mutabilitie Cantos*. Ed. Jane Grogan. Manchester: Manchester UP, 2010. 40-60.

K C I

ABSTRACT

The Self in Crisis in the *Two Cantos of Mutabilitie*

Jin-Ah Lee

Noting that Spenser's *Mutabilitie Cantos* registers the general crisis and change of Europe in the early modern era and the poet's perception of it, this paper illumines the poem with the concept of self, and shows that the subversive claims of *Mutabilitie* anticipate the dissolution of Spenser's Christian-Platonic idea of self and the emergence of new self-concepts since the 17th century. *Mutabilitie* is a precursor of Descartes, Locke, and their successors in the discussion of self and identity. Her shaking of the extant hierarchy of the Aristotelian and the Christian-Platonic world in turn affects the microcosmic world of humans and disturbs the foundation of human self. *Mutabilitie*'s views of human beings and life and death contain an early modern germination of the ideas of modern self, the self-concepts that would dismantle Spenser's firmly believed non-material, immortal, divine substance of self. Her subtle mentioning of mind, not soul as the immortal constituent of a person, foreshadows Descartes's choice of mind as the core of self and identity. *Mutabilitie* denies the existence of eternal soul after death, materializing self. This materialization of self is parodied in the act of Faunus, who has made the divine chastity of Cynthia a voyeuristic object. *Mutabilitie*'s disclamation of the existence of soul after death predicts Locke's idea of self which puts consciousness at the center of self and identit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mmortal substance of person. Her doubt of any immortal, immutable constituent within human beings could be related even to the post-modern ideas of no-self or an unimportance of identity.

Key Words | Edmund Spenser, *Mutabilitie Cantos*, self, self-crisis, Plato, Descartes, Locke

원고 접수 2017년 7월 21일 | 심사 완료 2017년 8월 19일 | 게재 확정 2017년 8월 22일